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C지역의 간호대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만족도,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19.3%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성에서는 대인관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계수에서는 자아존중감($r=.123, p<.001$), 사회적지지($r=.323, p<.001$)는 양의 상관관계로, 생활스트레스($r=-.173, p<.001$)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를 위한 관계 형성 등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증재방안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98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C area in November and December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0.0 software. The findings showed that social support,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life str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se factors explained 19.3% of the variance in their subjective happiness. The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and found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ased on interpersonal relations, economic stat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the nursing student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r=.123, p<.001$) and social support ($r=.323, p<.001$)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ife stress ($r=-.173, p<.0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the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subjective happiness. The findings raise the need to reinforce a support system involving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predecessors, and successors for social support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would result in highe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o increas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words :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Life Stress, Nursing College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ong-Im Kim(Jungwon Univer)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May 30, 2023

Accepted August 10, 2023

Revised June 22, 2023

Published August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1],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도 OECD 22개국 중 22위로 최하위로 보고되고 있다[1].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각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또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및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하고[2], 특히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전공 만족도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주관적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저하는 학업 수행은 물론 대학생활 적응까지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4]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5], 보통 어떤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사물과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6],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감정상태를 말한다[7]. 또한,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스트레스에 대해 잘 대처하면서[8], 효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9], 취업 후 간호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10]. 반면에 주관적 행복감이 저하 되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11]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긍정적 태도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의 확인이 필요하며, 중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을 잘 대처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13],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지고,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고, 적극적으로 임한다[5].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지고, 대학 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이에 간호대학생

의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관적 행복감과 관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지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 요소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14]. 사회적지지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15],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며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즉, 사회적지지는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대학생활 적응도 잘하는 것으로[11]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에 또 다른 영향요인인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변화하는 대학생활 환경과 과제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트레스로, 대학생활 적응 및 행복감을 저해하기도 한다[2,16].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의 역할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도 일반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10]. 이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며,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전공만족도[17], 사회적지지[2], 자아존중감[18], 지각된 스트레스[19], 스트레스[10], 긍정적 정서[11] 등이 보고되었으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와 생활스트레스를 포함한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 적응 및 만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위치해 있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적 사항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20]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 정도인 .15, 예측변수 12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84명이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상 임상 실습과 학교수업 교체시기이거나 학습활동 평가시기의 부담감과 민감성을 고려하고 부정확한 설문지가 많을 것을 예상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320부를 배부하였고 308부가 수거되었으며(회수율 =96.3%),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10부를 제외한 298부를 분석에 사용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 수 298명은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

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대인관계, 건강상태, 가정경제상태, 성적,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Suh와. Koo[21]이 개발한 행복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 정서적 영역으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모두 측정하는 단축형 행복 측정 도구이다. 각 문항은 7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90$ 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Jeon[22]이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긍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개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였고 전병개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8$ 이었다.

2.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Park[23]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도구 중 Heo[24]가 재 구성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친구지지 5문항, 가족지지 5문항, 교수지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1$ 이었다.

2.3.4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on 등[25]이 대학

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23문항,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 문제 5문항, 학업문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는 5점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 \sim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하위 영역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sim .94$,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성적, 대인관계, 건강상태, 가정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53명(17.8%), 여자가 245명(82.2%)이었으며, 나이는 21-22세가 205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23-24세 73명(24.5%)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1학년 77명(25.8%), 2학년 78명(26.2%), 3학년 77명(25.8%), 4학년 66명(22.2%)이었으며, 성적에서는 중위권이 164명(55.0%)으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 좋음 ' 이 152명(50.7%)으로 가장 많았으며, ' 매우 좋음 ' 82명(27.5%), ' 보통 ' 이 65명(21.8%)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 건강 ' 하다는 군이 159명(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 매우 건강 ' 하다는 군이 72명(24.2%), 건강상태가 ' 보통 ' 인 군도 58명(19.4%), ' 나쁨 ' 인 군 9명(3.0%)로 나타났

다. 가정 경제상태에서는 ' 보통 ' 정도의 경제상태가 166명(55.7%), ' 여유 있는 ' 에서 63명(21.2%)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 약간 만족 ' 140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 보통 ' 81명(27.2%), ' 매우 만족 ' 이 65명(21.8%)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 보통 ' 129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 약간 만족 ' 125명(41.9%), ' 매우 만족 ' 이 28명(9.4%)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수준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평균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관적 행복감의 척도범위는 1-7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29 \pm .80$ 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척도범위는 1-5점으로 평균값은 $2.02 \pm .66$ 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의 척도범위는 1-5점이며, 전체 평균값은 $3.89 \pm .52$ 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으로 ' 친구지지 ' 의 평균값은 $4.12 \pm .64$, ' 가족지지 ' 의 평균값은 $4.27 \pm .75$, ' 교수지지 ' 의 평균값은 $3.26 \pm .61$ 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의 척도범위는 1-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2.02 \pm .54$ 로 나타났으며,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영역으로 ' 대인관계 ' 의 평균값은 $1.69 \pm .58$, ' 경제문제 ' 의 평균값은 $1.79 \pm .77$, ' 장래문제 ' 의 평균값은 $2.49 \pm .80$, ' 가치관문제 ' 의 평균값은 $2.16 \pm .82$, ' 학업문제 ' 의 평균값은 $2.89 \pm .91$ 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행복감은 학년($F=2.11, p=.085$), 대인관계($F=7.40, p<.001$), 경제상태($F=3.45, p=.009$), 전공만족도($F=3.81, p=.010$), 대학생활 만족도($F=5.7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 매우 좋은 ' 군이 ' 보통 ' 인 군과 대인관계가 ' 좋은 ' 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p<.001$).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 매우 나쁨 ' 군과 경제상태가 ' 매우 좋음 ' 군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 매우 만족 ' 인 군이 ' 불만족 ' 인 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p=.010$).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 매우 만족 ' 인 군이 ' 매우 불만족 ' 인 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98)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53	17.8
	Female	245	82.2
Age(yr)	21-22	205	68.8
	23-24	73	24.5
	≥25	20	6.7
Grade	1st grade	77	25.8
	2nd grade	78	26.2
	3rd grade	77	25.8
	4th grade	66	22.2
Course credits	Top level (up to 30% of top)	89	29.9
	Midrange	164	55.0
	Lower level (less than 30%)	45	15.1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82	27.5
	Good	152	50.7
	Usually	65	21.8
Health	Very healthy	72	24.2
	Healthy	159	53.4
	Usually	58	19.4
	Bad	9	3.0
Family economic status	Financially difficult	4	1.3
	Lack	17	5.7
	Usually	166	55.7
	Relaxation	63	21.2
	Very relaxed	48	16.1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65	21.8
	A little satisfied	140	47.0
	Common	81	27.2
	A little unsatisfied	12	4.0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28	9.4
	A little satisfied	125	41.9
	Common	129	43.3
	A little unsatisfied	16	5.4
Total		298	100.0

Table 2. Level of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N=298)

Variables		M±SD	Range
Subjective happiness		4.29±.80	1-7
Self-esteem		2.02±.66	1-5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4.12±.64	1-5
	Family support	4.27±.75	1-5
	Professor's support	3.26±.61	1-5
	Total	3.89±.52	1-15
Life stress	Human relationship	1.69±.58	1-5
	Economic problem	1.79±.77	1-5
	Future problem	2.49±.80	1-5
	Value issue	2.16±.82	1-5
	Academic problems	2.89±.91	1-5
	Total	2.02±.54	1-25

Table 3.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8)

Variables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Life stress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4.30±.81	.167	.896	1.98±.66	.026	.395	3.86±.59	5.018	.018		3.92	<.001
	Female	4.28±.80			2.02±.66			3.89±.50					
Age(yr)	21-22	4.29±.84	.184	.907	2.02±.68	.144	.934	3.91±.48	.714	.544	1.99±.52	2.10	.110
	23-24	4.32±.69			1.98±.62			3.86±.61			2.03±.58		
	≥25	4.27±.80			2.06±.66			3.71±.53			2.27±.63		
Grade	1st grade ^a	4.21±.86	2.11	.085	2.00±.59	1.56	.197	3.91±.42	.691	.555	1.94±.55	2.79	.041
	2nd grade ^b	4.41±.77			2.01±.70			3.94±.49			1.97±.47		
	3rd grade ^c	4.13±.85			2.14±.73			3.85±.61			1.99±.51		
	4th grade ^d	4.40±.65			1.97±.59			3.83±.54			2.18±.63		
	Duncan										a,b,c<d		
Course credits	Top level ^a	4.35±.77	3.55	.576	2.01±.68	1.27	.280	4.04±.48	6.31	.002	1.95±.59	2.62	.075
	Midrange ^b	4.27±.76			2.15±.62			3.84±.49			2.00±.51		
	Lower level ^c	4.29±.96			1.96±.72			3.75±.62			2.17±.53		
	Duncan						b,c<a				a<b<c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a	4.57±.83	7.40	<.001	2.25±.50	14.97	<.001	4.20±.45	27.90	<.001	1.80±.55	14.51	<.001
	Good ^b	4.18±.79			2.08±.65			3.83±.50			2.01±.53		
	Usually ^c	4.17±.69			1.70±.68			3.69±.47			2.17±.45		
	Duncan	b,c<a			c<a,b			c<b<a			a<b<c		
Health	Very healthy ^a	4.39±.86	1.00	.391	2.65±.71	7.88	<.001	4.12±.48	7.02	<.001	1.84±.56	7.57	<.001
	Healthy ^b	4.24±.79			2.20±.62			3.82±.51			1.99±.50		
	Usually ^c	4.31±.65			2.02±.63			3.81±.53			2.27±.55		
	Bad ^d	4.01±.10			1.77±.67			3.71±.44			2.16±.55		
	Duncan				d<b,c<a			b,c,d<a			a,b<c,d		
Family economic status	Financially difficult ^a	5.05±1.31	3.45	.009	1.91±.80	2.19	.070	4.05±.30	2.94	.021	2.24±1.06	8.39	<.001
	Lack ^b	4.18±.65			1.89±.69			3.85±.50			2.29±.46		
	Usually ^c	4.24±.74			2.05±.61			3.81±.45			2.10±.49		
	Relaxation ^d	4.14±.85			2.22±.47			3.93±.59			1.93±.55		
	Very relaxed ^e	4.59±.84			2.60±.80			4.09±.61			1.65±.52		
	Duncan	b,c,d<e<a			a,b,c<d<e						e<d<a,b,c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4.47±.87	3.81	.010	2.40±.57	5.56	<.001	4.12±.49	12.47	<.001	1.78±.47	10.66	<.001
	A little satisfied ^b	4.34±.75			2.16±.63			3.94±.47			1.98±.51		
	Common ^c	4.10±.77			2.01±.64			3.63±.50			2.19±.56		
	A little unsatisfied ^d	3.90±.70			1.78±.70			3.76±.71			2.46±.48		
	Duncan	c,d<a,b			d<b,c<a			c<b,d<a			a<b,c<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4.62±.91	5.76	<.001	2.02±.41	2.60	.052	4.41±.40	16.23	<.001	1.74±.65	3.06	.028
	A little satisfied ^b	4.42±.78			2.13±.65			3.94±.47			2.00±.51		
	Common ^c	4.10±.75			1.91±.59			3.75±.49			2.07±.53		
	A little unsatisfied ^d	4.09±.78			1.90±1.01			3.63±.67			2.11±.59		
	Duncan	b,c,d<a					d<b,c<a				a<b,c,d		

자아존중감에서는 대인관계($F=14.97, p<.001$), 건강문제($F=7.88, p<.001$), 전공만족도($F=5.56, p<.001$), 대학생활 만족도($F=2.60, p=.05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매우 좋은'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p<.001$). 건강문제에서는 '매우 좋은' 군이 건강이 좋거나 보통인 군, 나쁜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p<.001$).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만족', '보통',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p<.001$),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p=.052$). 사회적지지에서는 성적($F=6.31, p=.002$), 대인관계($F=27.90, p<.001$), 건강문제($F=7.02, p<.001$), 경제문제($F=2.94, p=.021$), 전공만족도($F=12.47, p<.001$), 대학생활 만족도($F=16.2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이 '상위권'이 '중위권', '하위권'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는 '매우 좋은' 군이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았고($p<.001$), 건강문제에서는 건강이 '매우 건강' 군이 '건강'한 군, '보통', '나쁜'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았다($p<.001$).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더 높았으며($p<.001$),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더 높았다($p<.001$).

생활스트레스에서는 대인관계($F=14.51, p<.001$), 건강문제($F=7.57, p<.001$), 경제문제($F=8.39, p<.001$), 전공만족도($F=10.6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p<.001$). 건강문제에서는 건강이 '나쁜' 군이 '건강',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았으며($p<.001$),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나쁜' 군이 경제상태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p<.001$). 전공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인 군이 '매우 만

족'인 군', '보통'인 군 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았다($p<.001$)(Table 3).

3.4 대상자의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r=.123, p<.001$), 사회적지지($r=.323, p<.001$)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r=-.173, p<.001$)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r=.333, p<.0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생활스트레스는($r=-.388, p<.001$)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와 생활스트레스는($r=-.393, p<.001$)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별, 학년, 대인관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Dummy변수로 전환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의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수행한 결과, 값이 1.85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5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도 1.03-1.52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이상 값을 확인하기 위한 Cook's D 검정을 수행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적합하여 분석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N=298)

Variables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r	p	r	p	r	p
Subjective happiness	1					
Self-esteem	.123**	<.001	1			
Social support	.323**	<.001	.333**	<.001	1	
Life stress	-.173**	<.001	-.388**	<.001	-.393	<.001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N=298)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30.19	6.07		4.38	.000
Gender	-.086	1.05	-.005	-.082	.395
Grade	.410	.369	.063	1.111	.267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378	.648	.042	.584	.175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975	.722	.100	1.350	.000
Human relationship	-.264	.681	-.026	-.387	.699
Economic status	-.112	.511	-.014	-.219	.827
Self-esteem	.005	.068	.059	.079	.937
Social support	.222	.067	.242	3.666	.000
Life stress	-.014	.018	-.053	-.777	.138

R²=.221, Adj R²=.193, F=4.38, p<.001

*Dummy variable reference group: Gender: M, Grade: Freshman,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Human relationship: Good, Economic status: Low

하였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를 예측변수로 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38, p<.001), 주관적 행복감을 수정된 R²는 19.3% 설명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로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β=.042, p=.175),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경우(β=.100, p<.001)로 나타났으며, 영향요인 중에서 사회적지지(β=.242, p<.001)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확인해보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관적 행복감 평균값은 4.2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Jo와 Park[26]의 3.72점보다 높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l[16]의 4.75점보다 주관적 행복감 평균값보다 약간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비교 볼 때에는 간호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는 주관적 행복감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난[27]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나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 저하에 영향을[28]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학업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주관

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비교에서 대인관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인 Lee 등[5]과 Park[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었고, Cho[29]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 전공만족도, 경제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특히, 경제상태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관적 행복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높은 군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Lee 등[30], Park[10]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제상태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아르바이트와 교내, 외 장학제도의 안내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평균값 2.02점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Lee와 Kim[13]의 3.17점 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다른 도구를 이용한 Jee 등[31]에서도 3.0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조금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의 평균의 차이가 있어 Lee와 Kim[1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높아져 긍정적인 정서와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 추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지지의 평균값은 3.8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를 확인한 Yu[11]의 3.86점과는 유사하였고, Kim과 Jeon[17]의 3.95점보다는 낮았지만 사회적지지의 평균값은 보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에서는 친구, 가족, 교수 등의 각각의 영역 중 가족지지가 4.27점으로 다른 지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를 연구한 Yoo[32]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에서는, 성적,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Yu[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적을 향상시키며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사회적지지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회적지지 각 영역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의 사회적지지 강화를 통해[33]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생활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Yu[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Lee와 Kim[13], Kim과 Jeon[17]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은 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증가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생활스트레스는 낮추고 자신에 대한 가치와 효능감을 높이면서 사회적지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만족도, 생활스트레스 등이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9.3%였다. 이 결과는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l[16]의 16.7%와 유사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13]의 32.4%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여 추

후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만을 중요시하는 관점의 변화와 생활스트레스를 감소 및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부 지역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간호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성에서는 대인관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는 양의 상관관계로, 생활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를 위한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들을 촉진시켜 자아존중감 및 만족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과 영향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하여 학교적응 및 나아가 삶의 만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References

- [1] Y. S. Yeom,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the well-Being index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2021, Korea Bang Jeong-hwan Foundation,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2022.

- DOI: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1-0009-V1.0>
- [2] S. A. Ahn, M. Y. Sim,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0, pp.7021-7033,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0.7021>
- [3] M. H. Nam, M. R. Lee, "Factors influence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0, pp.363-374,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10.363>
- [4] E. Y. Kim, K. S. Lim, "The Effect of stress on the happiness index of nursi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381-391,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381>
- [5] S. H. Lee, B. Y. Chung, S. H. Kim, "Influence on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9, No.1, pp.115-126, 2015.
DOI: <https://doi.org/10.5932/IKPHN.2015.29.1.115>
- [6] W. C. Campton.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Thomson/Wadsworth, 2005.
- [7] H. S. Park, "Stress, yangsaeng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femal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471-481, Nov, 2014.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4.20.4.471>
- [8] J. H. Park, G. Y. Jo, Predictors of subjectives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7, No.2, pp.511-522, 2016.
DOI: <https://doi.org/10.7465/ikdi.2016.27.2.511>
- [9] H. C. Kim, H. S. Park, D. S. Choi, "A Study on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3, pp.361-374, 202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1.3.27>
- [10] M. S. Park,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elf Esteem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4 pp.395-402,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4.395>
- [11] M. O. Yu,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3 pp.110-11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3.110>
- [1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e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13] J. G. Lee, J. K.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5 pp.475-481,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5.475>
- [14] Y. C. Kwon, C. Y. Jeong, Y. S. Seo,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1, pp.197-206,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1.197>
- [15] S. E. Hobfoll,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6, No.4, pp.307-324, Dec, 2002.
DOI: <https://doi.org/10.1037/1089-2680.6.4.307>
- [16] I. Y. Cho,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3 pp.118-128,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3.118>
- [17] J. H. Kim, H. O. Jeon.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25, No.2 pp.123-132, 2016.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2.123>
- [18] S. H. Kim, S. H. Lee,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7, No.1, pp.63-72, 2015.
DOI: <https://doi.org/10.7475/kjan.2015.27.1.63>
- [19] E. M., Kim, Y. H. Yang, H. Y. Lee M. Yu.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5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294-303, 2016.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6.22.3.294>
- [20]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1] E. K. Suh, J. S. Koo,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25, No.1, pp.95-113, 2011.
DOI: <http://dx.doi.org/10.21193/kispp.2011.25.1.006>
- [22]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Research Institute*, Vol.11, No.1, pp.107-130, 1974.
- [23] J. W.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85.
- [24] Y. S. Heo, "A Study on Perceived Happiness of Adolescen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25] K. K. Chon, K. H. Kim, J. S. Lee,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pp.316-335. 2000.
- [26] G. Y. Jo, H. 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1, pp.160-169, 2011.
DOI: <https://doi.org/10.5762/KAIS.2011.12.1.160>
- [27] J. H. Noh, M. G. Lee, "Why should I be thankful?: The effect of gratitude on well-being under the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0, No.1, pp.159-183, 2011.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1.30.1.009>
- [28] H. S. Cho,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Vol.12, No.1, pp.3-14, 2009.
- [29] H. C. Cho,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Vol.24, No.1 pp.157-184, 2013.
Available From: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385.2013.24.1.005&res_svc_cd=#:~:text=G704%2D001385.2013.24.1.005
- [30] S. H. Lee, & S. J. Kim,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6, No.3, pp. 453-464. 2012.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2.26.3.453>
- [31] Y. J. Jee, K. N. Kim,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2, pp.19-27, 2016.
Available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2406348_Factors_Influencing_Resilience_of_a_Nursing_College_Student
- [32] K. H. Yoo, "A mediator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for college life and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125-135, 2019.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9.25.1.125>
- [33] E. Y. Kim, "A Study on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9, pp.385-395, 2017.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7.15.9.385>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